

카프로, 직장폐쇄 후 노조 파업집회

울산 근로자복지회관서 조합원 300명 집회 ... 협상 결렬 후 대책마련

카프로락탐(Caprolactam)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기업 카프로 노사가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8월1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외에서 파업 집회를 여는 것은 카프로가 8월12일 직장폐쇄를 단행해 사내에서 파업 집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사협상 경과 및 투쟁 계획 등을 보고한데 이어 오후에는 남구 옥동 울산노동지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카프로가 협상을 갖지 않는 등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파업과 직장폐쇄 이후 우려되는 공장 산업안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에도 진정을 제기하는 등 노사협상 결렬 이후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프로 노사는 5월3일부터 10여차례 가진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되자 노조가 8월3일부터 14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카프로측은 파업으로 현재까지 140억여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16>